

■ 국내 영화 해외 영화제서 잇따른 쾌거

홍상수 감독의 17번째 장편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제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한국영화로 배용근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



▲ 8월 15일(현지시간) 제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국제경쟁부문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홍 감독은 제66회 때 영화 '우리 선희'(2013)로 같은 부문에 초청돼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바 있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는 베를린·칸·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유럽에서 권위 있는 영화제로 꼽힌다.

이 영화의 남자 주연을 맡은 배우 정재영은 이번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 배우의 남우주연상 수상은 정재영이 처음이다. 정재영은 또한 제9회 아시아태평양영화상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박정범 감독이 4년 만에 메가폰을 잡고 주연 배우로도 활약한 '산다'가 같은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심사위원특별상은 영화제의 10개 경쟁부문 가운데 하나다.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제21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다.

독립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제16회 아시아티카영화제에서 최우수극영화상을 받았다.

6월 11일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 3만5천 명을 모으며 손익분기점(3만 명)을 넘는 흥행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아시아티카영화제(Asiatica Film Mediale)는 아시아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로, 2000년부터 매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고 있다.

영화 '마돈나'가 제35회 하와이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할레쿨라니 황금 난초상'을 받았다. 이번 영화제는 '마돈나'와 '사도'를 비롯, '오피스', '암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소수의견', '베테랑', '미쓰 와이프' 등 다수의 한국영화를 초청했다.

■ 국내 영화계 해외 진출...표준계약서 자리 잡아

영화 투자·배급사인 뉴(NEW)가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첫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뉴는 2014년 53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던 화책미디어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웹툰작가 강풀의 '마녀'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영화화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업체인 CGV는 중국 최대 업체인 완다시네마와 다면상영시스템인 '스크린X' 확산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화감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표준연출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표준계약서가 연이어 마련돼 2015년 영화계에서도 각종 표준계약서를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임상수 감독의 부친이자 원로 영화평론가인 임 영(87) 씨, 원로 영화감독 심우섭(88) 씨, 1970년대 충무로 춘추시대의 대표 여배우 진도희(66) 씨, 촬영감독의 대부 서정민(81) 씨 등 한국 영화계의 '큰별'들이 지기도 했다.

종교

■ 개요

종교계는 2015년 특별한 이슈가 없었지만, 남북의 종교 대표자들이 빈번하게 만나 민족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했다. 불교계와 천주교계는 잇따라 북한을 방문해 민족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모색했다.

조계종과 천태종은 각각 금강산 신기사와 개성 영통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봉행했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추진위원회는 북한을 방문해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조계종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여 종단의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찾는 대중공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으나,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감형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또 조계종은 안팎의 비난 속에서도 조계사에 은신한 한 상군 민주노총 위원장을 설득해 자진 출두를 이끌어냈다.

개신교계는 선교 130주년, 대한성공회는 선교 12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 순회송신부가 주교가 되면서 주교가 3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종교인 과세는 47년 만에 입법 확대 2018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 남북 종교인들, 민족화해와 교류 추진에 박차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이 회원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11월 9일 2011년 이후 4년 만에 북한을 찾아 북한 종교인을 만났다.

남한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스스님) 회원 150명과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협회장 강지영) 회원 50명은 금강산의 금강산호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남북 종교인들은 "일촉즉발의 교전 직전까지 치달던 긴장 상태가 극적인 고위급 접촉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며 "남북 종교인들이 잦은 교류를 통해 자주적인 통일 운동을 추동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 11월 9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남북종교인 모임에서 남측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신앙과 교단을 존중하고 종교인 사이에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0월 15일 남북 불자 105명이 모인 가운데 금강산 신계사 낙석 8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합동법회를 했다. 이날 법회 참가 인원은 약 300명이 참석했던 2007년 낙석 이후 가장 많았다.

이어 천태종은 11월 3일 70명의 방북단을 이끌고 개성 영동사를 찾아 복원 10주년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영동사 법회에는 신계사보다 많은 120명이 참가했다.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10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미사’에 참석했고,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추진특별위원회가 12월 1~4일 북한에서 조선가톨릭교회 협회 관계자와 면담해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주교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추진특별위원회는 북측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미사 봉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조계종, 토론으로 미래 모색…대중공사 시작

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사상 처음으로 스님과 재가 신도들이 한자리에 종단 혁신과 불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중공사(大衆公事)를 9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대중공사는 신도의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사찰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종단에 대해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사부대중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는 ‘종단 각계 지도자들이 모인 정기적 대중공사’를 열겠다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총무원장을 비롯해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총무기관장, 교구 분사 주지, 선원과 율원, 강원, 비구니 대표, 중진 스님, 여기에 신도포교 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까지 불교계 안팎에서 선정된 위원 146명이 모여 종단의 각종 문제를 토론했다.

서울 불광사에서 4월 29일 열린 제4차 대중공사에서는 ‘종단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이 벌어졌

고, 8월 26일 개최된 제6차 대중공사에서는 승려와 재가 신도를 아우르는 불교 공동체 운영원리를 현대 한국사회에 맞게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구소에서 펼쳐진 제7차 대중공사에서는 승가 청규를 중심으로 본 바람직한 승가상,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승가 공동체, 범계 행위에 대한 승가 공동체의 대응 방안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계종은 12월 1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대중공사를 공사(公事)하다’를 주제로 한 평가 좌담회를 열어 대중공사를 마무리했다.

■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사면 놓고 갑론을박

1994년 승려대회에서 멸빈(승적 박탈)된 서의현 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의 사면 문제가 한여름 종단을 달궜다. 대한불교조계종은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제5차 대중공사를 열었다.

앞서 조계종 사법기구인 재심호계원은 1994년 당시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지 못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서 전 총무원장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를 줄였다.

당시 서 전 총무원장은 두 차례 총무원장을 지낸 뒤 3선 연임을 시도했고, 이에 승려들이 3선 반대와 종단 개혁을 요구하며 종헌·종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탈종과 개종 도모, 은처 등 가족관계 논란, 종단 화합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불법 집단행위 야기 등을 이유로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해 멸빈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조계종 승려와 재가자들이 “사면 결정은 종단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라며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멸빈자 사면 등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되자 사면 결정을 내린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9월 7일 보직에서 물러났다.

자광 스님은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서 종헌 종법을 따르고 이의 범주 내에서 신중을 기해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개혁의 대의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부대중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부족함을 통감해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과거사 정리와 멸빈자 사면 문제 등을 논의할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를 9월 22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개신교, 역사적인 해 맞아 기념행사

2015년은 한국 개신교의 씨앗을 뿌린 미국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와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30년이 되는 해였다.

장로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는 교단은 서로 달랐지만, 한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고 선교 활동에서도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한국에 개신교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두 사람이 서울 정동에 나란히 세운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

안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는 선교 130주년을 맞아 5월 30~31일 '아편젤라와 언더우드'의 선교정신과 현대 한국 교회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두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도 마련됐다. 두 교회는 초기 선교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자성적인 의미를 담아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될 당시 초기 형식대로 공동 예배를 드렸다.

또 2015년은 미국의 의료선교사인 호러스 알렌이 제증원을 만들고 그 안에 신앙공동체를 조직해 주일 예배를 드린 지 130주년이 된 해이기도 했다. 이 공동체를 계승한 남대문교회는 6월 21일 기념 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는 알렌 선교사의 모교회인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제일장로교회의 데보라 패터슨 목사를 비롯한 축하 사절들도 참석했다.

한편 대한성공회는 영국 해군 군목이었던 존 코프 신부가 한국 초대 주교로 성품돼 선교를 시작한 지 125주년을 맞아 10월 3일 한인 최초의 성공회 사제인 고 김희준 신부의 흉상 제막식과 감사성찬례, 합창 공연 등으로 구성된 행사를 열었다.

성공회 서울주교좌석당은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건물 이 철거되면서 대로에서도 볼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 조계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은신 '화쟁'으로 해결

11월 14일 경찰과 대규모 충돌을 야기한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 뒤 11월 16일 조계사로 들어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문제를 놓고 조계종이 큰 곤욕을 겪었으나, 화쟁 정신을 강조해 자진 출두를 이끌어냈다.

조계종은 2010년 대화와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 화쟁위원회에 한 위원장의 설득과 중재라는 중책을 맡겼다. '화쟁(和諍)은 다양한 종파와 이론적 대립을 소통시키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불교 사상이다.

한 위원장이 11월 18일 화쟁위에 중재를 요청하고 다음날 화쟁위 위원장인 도법 스님이 한 위원장의 요청 내용과 각계각층의 의견,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한 대화는 시작됐다.

조계사 일부 신도들이 한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고, 한 위원장이 조계사 신도회가 제시한 퇴거 일자인 12월 6일을 넘겨 머무르는 와중에도 도법 스님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에 수차례씩 한 위원장을 찾아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며 설득을 거듭했다.

결국 경찰이 공권력 투입 시점으로 제시한 12월 9일 오후에도 도법 스님은 한 위원장과 대화를 이어가 한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고, 한 위원장은 12월 10일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 나갔다.

조계사 주지이자 총무원 총무부장인 지현 스님은 12월 11일 "종단은 필요가 없겠지만 조계사 차원에서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은신 요청 시 대응 조치를 만들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던 조계사에서 경찰에 자진출두하기에 앞서 도법 스님과 경내를 걷고 있다.

■ 서울대교구 새 주교 탄생...한국 천주교 주교 37명

손희송 서울대교구 신부가 8월 28일 주교 서품을 받으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현직 주교가 25명(추기경 1명, 대주교 2명, 주교 22명)으로 늘었으며, 은퇴 주교 12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의 주교(추기경 2명, 대주교 5명, 주교 30명)를 두게 됐다.

1986년 사제품을 받은 손 주교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신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6년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귀국 후 서울대교구 용산성당 주임신부를 거쳐 1994년부터 20여 년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의신학 교수를 역임했고, 2012년부터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으로서 재직했다.

서울대교구는 2013년 12월 유경춘·정순택 주교 임명 이래 1년 반 만에 새 보좌주교 탄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조구만, 유경춘, 정순택, 손희송 등 보좌주교 4명으로 이뤄진 현직 주교단을 구성하게 됐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손 주교는 뛰어난 학식과 겸손한 인품의 소유자로 사제단 내에 신망이 두터우며, 신학대학 교수로서 후학양성과 평신도 교육에도 앞장섰던 분"이라며 "교황께서 작년 방한에 이어 또다시 큰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다.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47년 만에 입법화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빠졌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으로 2018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던

사실상 50년 만이다.

종교인 과세가 결정되자 불교와 천주교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계는 “법으로 과세를 강제하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필요경비 범위 변경 내용 등을 적용하면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천 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만7천원이다.

그러나 과세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 시행 전에 찬성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법을 다시 고치자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

■ 개요

2015년 문화재계의 최대 성과는 1천년 만에 속살을 드러낸 경주 월성(月城) 발굴이다. 월성 발굴 작업은 2014년 12월 시작돼 다양한 건물터와 굽다리접시, 등잔, 벼루, 막새기와 등 유물이 출토됐다.

아울러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월성 조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대통령의 문화재 발굴 현장 방문은 40년 만의 일로, 월성 발굴은 이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남북 역사학자들은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를 발굴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진 ‘증도가자’는 다시 한 번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문화재청이 추진한 궁궐 숙박 체험 프로그램인 ‘궁 스테이’는 논란 끝에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줄다리기, 한국의 유교책판·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쾌거를 이룩했다.

■ ‘신라의 천년왕성’ 경주 월성 본격 발굴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주 월성은 신라 제5대 파사왕 22년(서기 101년) 봄에 축성을 시작해 그해 7월부터 왕이 거주했던 곳으로 신라가 멸망한 935년까지 궁성 역할을 했다.

월성 발굴조사는 1915년 일본 고고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처음 시행했고, 1979~80년 동문지를 조사해 해자 유구를 찾아냈다. 1985년부터는 1~5호 해자와 계림(鷄林) 북쪽의 건물터, 첨성대 남쪽 건물지, 월성 북서편의 건물터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월성 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이뤄졌다. 시굴조사에서는 기단과 초석(받침돌), 적심(초석 밑 다짐돌) 등을 갖춘 건물지 6동과 담장 12기 등을 확인했다.

경주 월성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9월 7일 월성 발굴조사 현장

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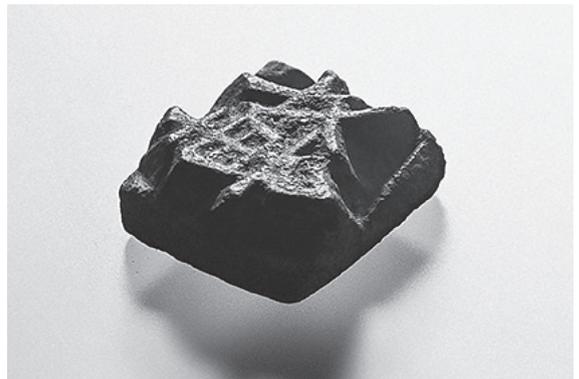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발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1975년 7월 3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퍼스트레이디를 대신한 자격으로 경주를 찾아 황남대총의 발굴 현장을 둘러본 적이 있다.

한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1월 30일 계림 맞은편에 있는 월성 해자 구간에서 개토제를 열고 시기별 축조 기법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조사에 돌입했다. 연구소는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자의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내부 퇴적토 조사를 통해 지층이 쌓인 순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자와 맞닿은 성벽의 안정성을 조사하고 해자 지형의 실측자료를 구축해 해자와 주변 지역의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남북 역사학자,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남북 역사학자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성 만월대 지역에서 제7차 공동발굴조사를 진행해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를 발굴했다. 이 금속활자는 11월 14일 만월대 서부건축군 최남단 지역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에서 출토됐다.



▲ 남북공동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에서 11월 14일 만월대 서부건축군 최남단 지역 신봉문터 서쪽 255m 지점에서 출토된 금속활자. (남북 역사학자협의회 제공)

개성 만월대에서는 1956년 금속활자가 발견된 이후 추가적인 출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007~2014년 조사에서는 짧은 발굴 기간 등의 한계로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7차 조사에서는 금속활자 전담팀이 꾸려졌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표토 아래 20~30cm 지점에서 파낸 흙을 채로 쳐 거르는 작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활자를 찾게 됐다.

출토된 활자는 ‘女+專(전일할 전)과 유사하게 보이나 우방 아래쪽 자획이 ‘方(모 방)으로 보여 정확한 글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활자의 크기는 가로 1.35cm, 세로 1.3cm, 높이 0.6cm다. 글자 면을 제외한 몸체의 두께는 0.16cm다.

최광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위원장은 “출토된 지역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보면 만월대가 소실된 1361년 이전 것으로 고려 활자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12세기 것인지, 13세기 것인지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설명했다.